# 익산, 공공택지 투기 특별감찰

## 정헌율 시장 'LH, 전개공 시행 일제 조사' 지시

### 공무원 포함 모든 투기세력 수사의뢰 예정

익산시가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개발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대한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익산시청 공직자를 비롯해 모든 투기 세력을 조사해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전원 수사를 의뢰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15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 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윤을 취득한 모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우선 LH가 시행하는 소라산공원개발지역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비롯해 전북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부송4지구까지 포함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기존 공공택지를 비롯한 민간개발지역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공공택지 보상 이전에 쪼개기 매입과 과도한 대출이 포함된 토지매입, 공무원과 직계가족이 포함된 매입 등 투기 의심 거래내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가게 된다.

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익산시 공무원은 자체 징계를 포함한 수사를 의뢰하고 그 외 타기관 투기 의심자 전원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투기 세력이 이번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과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투기 세력을 엄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기업체 · 시민 찾아가 해결방안 모색 방침

군산시는 관내 기업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 역할을 도맡아 지방규제신고센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규제·조례부서, 기업 관련 부서, 인·허가 부서 등 총 13개 부서 27명으로 이뤄진 지원반이 규제 발굴 및 검토 후 자체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즉시 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업체를 방문해 ▲국가산업단지 철거 이행보증금 폐지 ▲장기 미가동 도장공장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유예 ▲상호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원스톱 처리 ▲국가산업단지 전선주 지중화 사업 추진 건의 등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 한 바 있다.

행정규제나 기업규제 애로 사항이 있을시 군산시청 기획예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454-2332), 팩스(452-8157), 이메일(kopyeon@korea.kr)로도 신청 가능하며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군산소개〉행정규제개혁〉지방기업규제애로 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신고 할 수 있다.

이길용 기획예산과장은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거야 말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출발이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좋은 기회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 해결 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군산'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등 악재로 기업과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SK 새만금 투자, 군산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강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급부상이 예상되고 있어 중소기업 활성화에 따른 기업규제애로 발굴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 군산시, '무기명토론방' 개설로 내부소통문화 다진다

### 정책 제안의 경우 사업성 면밀히 검토 예정

군산시는 오는 17일 내부행정시스템에 '무기명토론방'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자율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토론방은 격의 없는 소통과 토론문화 정착,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기명토론방은 직원들의 소통을 통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꿔 유연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게시글은 담당부서에서 검토·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제안의 경우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한 글(명예훼손, 비방, 욕설, 허위사실)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깨끗한 소통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기명토론방'을 통해 조직 내 불합리한 문화나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소통교육과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어 2021년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34회 임시회 중 15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주요 사업과 현황을 청취했다.

# 시설 확충 및 예산 확보 지원에 공감

###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아동 · 청소년 관련시설 현장 방문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규)가 제234회 임시회 중 15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주요 사업과 현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익산시의 아동·청소년정책이 복지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두 기관과 지역자원과의 연계 활동을 비롯한 시설 확충 및 예산 확보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익산시의 정책과 현안이 복지행정 일선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시행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원광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

# 14년 연속 산 · 학 · 관 커플링 사업 선정

### 2020년도 평가 1위, 2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4년 연속 대학·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선정됐다.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대학·산·학·관 식품산업커플링사업은 도내 식품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식품기업에 우수인력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기업이 선호하는 전문성과 창조성, 인성이 함양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원광대 산·학·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은 식품품질안전 및 생산관리, 식품연구개발 및 외식산업 등 다양한 식품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식품 산업체 전문가 특강, HACCP 팀장 교육, GMP품질관리인 교육, 아동요리지도사, 장·단기 산업체 현장실습, 산학공동프로젝트 등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해 매년 90% 이상 높은 졸업생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원광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장 이영은(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산·학·관 커플링 사업의 목적에 맞춰 높은 취업률을 달성한 것은 전라북도 관계자를 비롯해 참여기업과 교수, 학생 등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식품기업과 우수한 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화목 보일러' 연통과열
### 익산소방서, 화재 주의 당부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익산시 삼기면 '화목 보일러' 연통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됨에 따라 화목보일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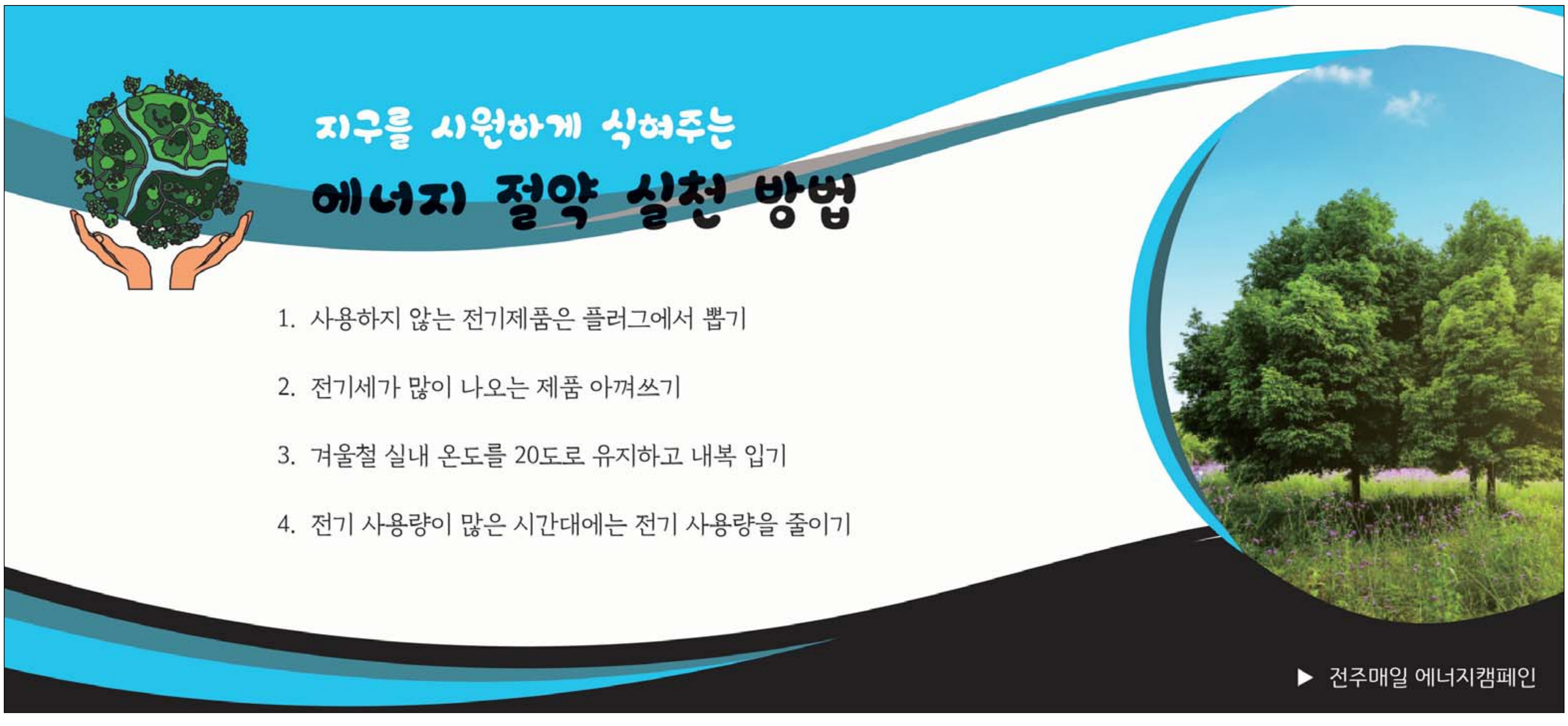
요즘 기온차가 크면서 일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지난 9일 익산시 삼기면에서 연통과열에 의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되어 화목보일러 관리에 경각심이 일고 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 ~ 2019년) 화목보일러 화재건수 는 총 104건으로 부상자 1명 재산피해 7억 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으로는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보관 ▲인근에 소화기 비치 ▲투입구 개폐시 화상주의 ▲나무 연료 투입후 투입구 닫기 ▲3개월에 한번 연통청소 등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초 · 중등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 개강

군산시는 15일 문해학습장 4개소에서 51명의 문해학습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초·중등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이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2021년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은 지난 11일, 문해교육기관 3곳에서 치러진 진입 평가를 시작으로 시험을 통과한 35명의 학습자가 참여한다. 학습자들은 최소 1년에서 10년이 넘게 문해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로 초등학력인정 학습자는 50대에서 80대까지며 70~80대 학습자의 비율이 69%를 차지했다.

새로 신설된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은 초등학력인정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으로 현재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과학 등 담당 교사와 함께 16명의 학생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전라북도교육청 주관으로 학기가 운영되는 동안 초등과정은 240시간, 중학과정은 450시간을 이수해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